

개고기 식용 양성화와 수의사의 대응



상 래 홍
대한수의사회 수의무위원

10년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개고기 식용 양성화는 전부터 대한수의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해온 문제이다. 최근 김홍신의원 등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여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것도 요즘의 사회분위기를 편승하여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양성화의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를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지난 6월 4일 서울시수의사회에서 '개식용 합법화 및 양성화 적극반대(서수 99-18)'라 제목으로 소속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그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김홍신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은 상당히 논리적이다. '법은 현실을 다루어야 한다.'라는 명제에 충실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수의 국민이 먹고 있는 고기를 위생적으로 취급하자"라는 것인데 서울시수의사회의 공문은 '개고기 양성화에 대한 반박자료' 등 좋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공문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공공성을 상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문내용중 상대방 의원들이 아무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회의원들이라고 가정해도 좋다. 적어도 우리를

대표하는 현 대한수의사 회장이 국회의원인 이상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아무리 한심하고 할 일 없는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신탕을 안전하게 먹을 궁리 끝에」 개식용 양성화 입법을 한다는 논리는 반대의 구실로 또한 비판의 도입부로는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이다. 만약 그 공문이 어떠한 경로로든 국회의원들에게 흘러 갔다면? 수의사들을 어떠한 눈으로 볼까? 아찔한 생각 마저 든다.

적어도 수의사회라는 집단의 성격과 행동은 일반단체와 다른 특수한 지적(知的) 집단이란 것을 명심해야 하며 도덕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긴급대책으로 집행부가 결정했다는 사항중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곧 있을 총선에서 해당의원들을 낙선시켜 기필코 응징한다.」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투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결정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이익단체나 집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어느누구도 설득 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필요한 자극으로 수의사에 대한 수준인식만 나빠질 것이다.

개과천선 할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응징한다는 말인가?

만약 국회의원들에게 청원한 개고기 판매·유통 업자들이 그들의 이기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중보건 향상을 역행한다고 우리 수의사회를 비방하고 우리회원인 이우재, 이길재 국회의원을 기필코 떨어트려 응징하겠다고 지역구에 있는 개고기 식용하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개거품을 물고 무식한 행동을 한다면 대한수의사회나 회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좋다는 말이나?

이해관계(개고기판매, 유통, 식용국민, 옹호자)가 맞아 떨어지는 그들의 주장인 위생적인 식단요구는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고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될일을 너무 성급했고 경솔한 행동이었다. 우리 수의사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가두 시위를 한다고 그 동안 먹었던 개고기를 안 먹을까? 접근방법이 잘못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일이 무엇인가?

첫째 : 논리적인 설득을 해야 한다.

전에도 그렇게 했듯이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대내외적 문제점을 수의관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하며 개고기를 식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과 위험성을 매개체를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이문제에 대한 조사를 우리는 게을리 했으나 지금부터라도 해야한다.

둘째 : 과학적인 설득을 해야한다.

다른고기에 대한 위험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불결한 개고기 식용시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조사된 것이 없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교육기관에서의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위험성을 경고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제는 마스크에서 어느 은행이나 기업이 부실하다고 하면 금방 망하고 퇴출되듯이 국민에게 설득해야 실효성이 있다.


셋째 : 대안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수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개고기를 먹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지구가 망해도 먹는 사람은 먹을 것이다. 보약이 아니다. 정력제가 아니다. 문화적 전통이 아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 해봐라 그들은 우리처럼 전문지식인이 아니라서 소경읽듯 할 것이다. 개고기를 먹거나 파는 사람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좋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전향적으로 인정하여 양성화(합법화)되면 안되는 이유를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주고 현행법규 내에서 모든 고기류의 위생적인 처리 방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것이다. 개고기 판매업자들은 불법인줄은 물론 법규미비로 통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 수의사회가 할일은 이것이다.

우리 수의사들은 국민의 보건 위생에 대해 무한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시장 잡배들처럼 행동할수는 없으나 반복되는 개고기 양성화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철저한 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정말로 우리의 철통같은 의지를 알리고 싶다면 만약 개고기 식용이 합법화 되어 그것이 시행된다면 우리 수의사의 고유업무인 검사업무를 이런 이유로 할 수 없다는 우리회의 단호한 입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이 더욱더 김홍신외 16명의 의원들에게 문제점을 알리는 동기가 되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결론

향후 대외적으로 문제점의 소지가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될 문제는 우리 수의사의 중심인 대한 수의사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일을 추진해야만 힘을 얻을수 있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라도 실천에서 소용이 없다면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휴지조각이며 무시될 것이다. 지금 개고기 식용양성화 문제는 문제의 본질 접근방법이 잘 알지 못하는 객관적인 제3자가 볼 때 우리 전문수의사들의 논리보다 김홍신외 16명이 더욱 논리적이라고 볼수 있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심도있게 접근해야 한다. 

전세계 임상 수의사의 선택!
조레틸 (Zoletil®)



조레틸은 Virbac사에서 개발된 최신 동물용마취·진정제로서 Phencyclidine 계열의 Tiletamine diazepine계의 Zolazepam의 합제로서 Tiletamine의 빠른 마취유도효과 및 무통효과와 Zolazepam의 근육이완 및 진정, 진통효과, 항홍분효과를 동시에 발현시켜 주면서 안전성이 뛰어난 마취, 진정제입니다.

<용법·용량>

조레틸50 사용시	개			고양이	
	보정·검진	소수술	대수술	보정·검진	수술시
근육주사	0.15ml	0.2 ml	0.3 ml	0.2 ml	0.3 ml
정맥주사	0.1 ml	0.15ml	0.2 ml	0.1 ml	0.15ml